

## 농촌관광개발 이해당사자 분석 방법론

- 사회연결망분석 사례 연구 -

이주연 · 이영주 · 이동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 An Alternative Methodology for Stakeholder Analysis in Rural Tourism Development

- A Case Study of Social Network Analysis -

Yi-Kook, Jouyeon · Lee, Yeongjoo · Lee, Dong-Ho

Dept. of Forest Science, College of Agri. & Life Sciences, Seoul Nat'l Univ.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pply a methodological approach, "social network analysis" to a case study for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al structure among stakeholders related to green tourism development. By doing so, this study argued tha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stakeholder's network structure to help green tourism planners develop collaborativ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This study identified the stakeholders regarding a community-based festival development in the southern area of Korea, and investigated two types of networks among them: decision-making power relational and intimate network. Interviewer-administrated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employed for data collection.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version 10.0) and Net-Miner II (version 2.5.0), and by constant comparison method. The result revealed that four different groups of the stakeholders were separated in the intimate network, and that the festival organizational body was not connected with other stakeholders in the decision-making power relational network. The existence of separated groups and weak relationship among the stakeholders appeared to relate to age-group differences, and different views on the festival between the stakeholders.

**Key words** : Decision-making power relational network, Intimate network, Rural tourism, Social network analysis, Stakeholder

### I. 서론

#### 1. 연구 배경

현재 한국의 농촌사회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농촌개발 모형을 모색하는 중이다. 대내적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 과정의 "불가피성"(Hirschman, 1958, 임형백과 이성우, 2004)으로 설명되었던 농촌에서의 도시로의 이동 및 산업의 불균형 발전은 과도한 도시집중을 낳았다. 그 결과 이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오염,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와 지역간 발전의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도시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사회의 쾌적성(amenities)이 새롭게 평가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결성으로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이 조성되어, 농촌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는 전 지구적 시장에서 무한 경쟁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임형백과 이성우, 2004). 아울러, 국제적으로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라 농촌사회는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을 따라야 할 필요가 생겼다.

농촌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내적·대외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농업에서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임형백과 이성우, 2004). 농업에서의 틈새 시장 개발은 두 가지 분야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재화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 분야이다. 틈새시장으로 개발이 가능한 재화로서 지역 내 생산이 가능한 농·수·임·광산품 중 부가가치가 높은 것과 수·공예품 등의 문화재, 그리고 깨끗한 물이나 청정한 공기 등의 환경재를 들 수 있으며, 서비스업으로는 지역 내 자연자원이나

Corresponding author : Yi-Kook, Jouyeon  
Tel : 02-880-4765  
E-mail : jouyeon@snu.ac.kr

전통 및 지역문화를 이용한 여가 및 관광 서비스업을 들 수 있다(OECD, 1995). 그런데, 이러한 틈새시장 개발과 함께 농촌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협력체계의 구축임이 농촌지역 전문가 및 관련 정부기관 종사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임형백과 이성우, 2004, 새국토연구협의회, 2005). 사실 2000년 이후 한국의 농림부는 OECD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새로운 농업개발 모형의 대안으로서 농촌관광에 주목하여, 농업정책의 하나로써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송미령과 성주인, 2005). 농림부는 농촌관광의 현황을 평가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농촌관광의 정책적 도입기로, 2005년 이후는 본격적인 농촌관광 발전기로 보고, 이를 주도할 인적자원 육성과 공급자간 협조적인 네트워크 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송미령과 성주인, 2005).

국내·외적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개발모형을 시도하는 농촌사회가 농촌관광개발과 지역사회 협조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몇몇 지역개발 전문가 및 지역관광개발 전문가들은 지역 및 관광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밝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강신겸, 1999, 신용석과 이태희, 2005, Reed, 1997).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반한 실증연구 사례 수가 거의 부재하고,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의 역동적인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 및 농촌사회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협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할 때, 이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개별 주체(또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별 주체간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사회의 협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사회, 농촌계획 및 농촌경제학계에서는 농촌관광개발 관련 이해당사자의 특성과 그들간의 관계적 구조 및 특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연구 사례를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개발 및 지역 관광 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그 지역민들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역민들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파악하는 조사방법론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사회의 관광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개발이나 관광개발과 관련한 정보 공유나, 의견 수렴이 어떤 이해당사자를 통하여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다 쉽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해당사자간의

사회 연결망 구조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간의 결속집단(혹은 갈등집단)을 만드는 사회, 문화적 이유를 찾아내어, 지역사회 개발이나 농촌관광 개발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의 보다 협조적인 관계를 양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촌사회 개발모형 중 하나인 농촌관광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대안적인 방법론으로서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적용가능성을 연구대상지의 농촌관광개발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관광개발 이해당사자에 대한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을 발전시키고, 농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에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농촌지역사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문헌연구

### 1. 주요 개념 정의

#### 가. 농촌관광

농촌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관광 사업을 총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지만, 농촌관광(조록환, 2003, 송미령과 성주인, 2005)과 그린투어리즘(일본 농림수산성, 1994)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그린투어리즘연구회(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 자문기관)는 그린투어리즘을 ‘푸르름이 짙은 농촌지역에서, 그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숙칭 그린투어리즘법)을 1994년에 제정, 1995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조록환은 농촌관광을 ‘농촌지역에 체재하면서 농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 농업, 농특산물 등을 매개로 농촌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즐기는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농촌에는 활력과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민에게는 휴양휴식과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매개형 지역 가꾸기의 구체적 방법’(조록환, 2003)으로 정의하였다. 다른 학자들은 농촌관광을 넓은 의미로 ‘자연 휴양림, 펜션 등 농촌의 각종 휴양시설 방문, 농촌지역 축제 참가 등이 포함된 농촌관광’으로 정의하거나, 좁은 의미로 “농촌관광마을 방문, 농촌체험활동 참가 등에 국한한 농촌관광”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송미령과 성주인, 2005).

이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주요 산업이 농산어업인 지역의 각종 휴양시설 방문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농산어업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나. 이해당사자

일반적으로 기업관리 분야에서 '이해관계'는 '소유권(所有權), 권리(權利), 이해(利害)'로 구분된다(Kelly, 1997, 강신겸 1999). 소유권(ownership)은 기업의 자산이나 재산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right)을 의미하고, 권리는 기업의 생존과 경영활동에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호받아야 할 어떤 청구권을 가리킨다. 이해 또는 이익(interest)은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면서, 소유권과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강신겸, 1999). 처음에 기업관리 분야에서 이해당사자(利害當事者, stakeholder)란 기업의 주주들에게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조직의 실행(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치는 힘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Freeman, 1984) 또는 '공통의 문제 또는 사안에 관심을 갖는 주체'(Gray, 1989)로 확대되어 종업원과 고객으로까지 확장되었다(신용석과 이태희, 2005).

이러한 이해당사자 개념은 多者間 협력이 중요시 되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199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활발히 이용되어 '특정한 조직 또는 특정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조직 또는 행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신용석과 이태희, 2005, Mitchell, 1997)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을 지역관광개발에 응용하면, 지역관광개발에서 이해당사자란 '지역관광개발과 관련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조직이나 집단, 개인'(강신겸, 1999)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강신겸(1999)은 직접적(1차적) 이해관계는 관광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역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반면, 간접적(2차적) 이해관계는 관광개발활동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정상적 활동의 제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강신겸은 이해당사자의 유형을 크게 정부 및 공공기관, 지역주민, 관광사업체, 계획가로 구분하였다. 강신겸은 관광개발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에 관광객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Sautter와 Leisen(1999)이 관광의 이해관계자의 유형에 관광객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관광개발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를 공급자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농촌관광의 일차적 목적이 농촌사회개발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농촌관광의 공급자적 측면에서 그 지역사회와 연관된 이해당사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 농촌관광개발 이해당사자란 '농촌관광개발과 관

련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조직이나 집단, 개인'으로서 지역외부에서 온 관광객을 포함하지 않는다.

## 2. 관광개발에서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기존 연구

관광개발을 포함한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이해당사자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협력'의 관점에서 이해당사자를 이해하는 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갈등' 관점에서 이해당사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1990년대부터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한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강신겸, 1999)의 개념을 활발히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관광개발에서도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두드러졌다(강신겸, 1999, Jamel과 Getz, 1995, Sautter와 Leisen, 1999, Palmer와 Bejou, 1995). 이 연구들은 '협력이론(collaboration theory)'(Gray, 1985)에 근거를 두고, 관광개발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 관광개발을 효과적으로 성취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amel과 Getz(1995)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에 있어서 협력이론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관광개발과정의 어떠한 조건에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들을 발전시켰으나 실증조사는 하지 않았다. Palmer와 Bejou(1995)는 미국과 영국에 있는 관광지 마케팅을 위한 연합기관, 단체 및 회사(alliances)에 대해서 연합의 형태(form), 기능적 범위(coverage), 내재적 특성(mode), 연합 동기(motives)별로 비교하는데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Palmer와 Bejou의 연구는 관광개발 관련 조직 및 단체들간의 연합 및 협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발전시켰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autter와 Leisen(1999)은 '이해당사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을 관광개발에 응용하여, 관광개발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유형을 밝히고 이해당사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단계를 밝혔으나 실증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강신겸(1999)도 유사하게 지역관광개발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해관계자 협력과정을 관광개발과정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나 실증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협력이론에 근거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이해당사자간의 권력의 불평등과 역학관계를 간과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적 측면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신용석과 이태희, 2005, Reed, 1997). Reed는 관광개발 계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관계의 유형을 구분하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한 지

역을 사례로 참여관찰,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용석과 이태희(2005)는 농촌관광개발 중에서도 특히 지역축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이해당사자 유형(집단)을 다섯 가지 지표(권력자원, 영향력, 관점, 참여방식, 기대이익)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파악한 후, 이해당사자간 협력관계 설정과 조정, 이익 배분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 역시 실증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관광개발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관광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개념 정의, 유형 구분, 이해당사자들의 연합관계의 특성, 관광개발과정 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협력방식을 구분하는 것들이거나, 갈등의 형태들에 대한 논의였다. 기존 연구들은 관광개발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는 이해당사자 분석 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의 내용'을 갈등 또는 협력으로 단정하고 어느 한 쪽 (갈등 또는 협력)에만 초점을 두어 설명함으로써 관광개발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관계의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수준의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살펴보는 실증조사의 예가 부족하여 이해당사자의 관계를 연구 조사하는 방법론 개발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관광개발 관련 이해당사자의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인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응용하여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지역축제개발 이해당사자 분석에 적용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 3. 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 사회적 관계 분석 방법론: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은 하나의 이론이자 연구 조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연결망 이론은 '관계적 인간관(relational concept of man)'(김용학, 2004)에 바탕을 두고, 그 분석대상을 '사회관계성의 형태(morphology), 혹은 사회적 연결의 패턴(patterns of social linkages)'(김용학, 2004)으로 삼고 있다. 사회연결망 이론은 개인의 개별적 속성(attribute)에서 개인의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에 설명의 축을 두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학, 2004). 아울러 연구·조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사회연결망 분석의 핵심적 개념들(연결망의 결속, 중앙성)과 사회연결망 자료의 종류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용학, 2004b).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어떤 사람들이 결속집단(clique)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결속집단은 그 집단에 속한 성원들이 모두 직접 연결됨과 동시에 이 결속집단은 다른 결속집단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결속집단의 의미는 높은 수준의 결속감, 협동관계, 정보의 교환, 집합행동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김용학, 2004b). 만약 결속집단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정의를 완화시켜 상호 연결될 필요 없이 한 방향으로라도 연결되어 있거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결속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결망 결속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포괄성(inclusiveness), 연결정도(degree)와 밀도(density)를 들 수 있는데 포괄성은 관계망을 보여주는 그래프에 포함된 결점(node)의 총수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결점들의 수를 뺀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20명의 그래프에서 5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그래프의 포괄성은 0.75가 된다. 연결정도는 한 결점이 맺고 있는 결점의 숫자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많은 사람은 연결정도가 많은 사람이다. 연결망 밀도란 가능한 총 관계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수의 비율로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1/n(n-1)/2$ 이다. 사회연결망에서 결속의 내용과 관련된 지표는 연결망의 강도와 연결 지속기간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연결망 내의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용학, 2004b).

연결망 결속 외에 중앙성(centrality)은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중 하나이다. 중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연결망에서 한 결점이 얼마나 많은 다른 결점들과 연결되는지 또는 한 결점이 다른 모든 결점들에 도달하려면 몇 단계나 필요한지로 잴 수 있다(김용학, 2004b).

사회연결망 자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며, 하나는 완전 연결망(complete network)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중심 연결망(ego-centric network)이다. 상호작용의 여부에 따라 A와 B의 관계가 이분법적으로 표현되거나 관계의 강도가 숫자로 표현되는 연결망을 완전 연결망(complete network)이라고 부르며 이 연결망에서는 응답자와 응답자가 상호작용하는 피응답자의 숫자가 일치한다. 완전 연결망은 분석단위의 경계선이 뚜렷한 학급이나 조직 등의 집단에 대한 조사에 적합하다(김용학, 2004b). 반면, 자아중심 연결망은 무작위로 추출된 응답자들로부터 그들이 맺고 있는 연결망과 연결된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해진 연결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자료는 응답자가 제공한 정보로부터 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으나 응답자 친구들 사이의 연결망의 구조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김용학, 2004b).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한 농촌 지역의 농촌관광개발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완전한 연결망 자료를 얻고, 이해당사자간 연결망 결속과 중앙성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 III. 사회연결망 분석 이용 사례 연구:

#### 고창 농촌관광(지역축제)개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 분석

##### 1. 조사 대상지 현황

###### 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전북 고창군 공음면 지역은 2004년 4월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보리밭, 예전 저수지, 용수천등 경관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당터, 오방돌기 등 전통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청보리밭 축제와 메밀꽃밭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고창군과 농업기반공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창군 장기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가고 있으며 공음면을 녹색경관관광개발권으로 선정하여 환경농업 중심의 경관농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공음면 전체 권역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경관농업 특구로 지정되었다. 선동권역의 선산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공음면 지역은 좋은 기후와 토질을 바탕으로 이국적 구룡형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 나. 청보리밭 축제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된 공음면의 한 관광농장(사장, 장영호)의 10만 여평의 보리경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로서 2004년에 처음 시작해서 2005년에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2회 축제를 실시하였다. 청보리밭 축제는 (1)농업, 농촌 경관을 테마로 체험·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2)친환경 지역 브랜드 이미지 구축 농특산물 판매 농가 소득증대, (3)전국최초의 경관농업특구지역 지정에 따른 선도적 경관농업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청보리밭 축제는 주요 방문객인 농촌체험관광객을 위하여 각종 전통 공연, 먹거리, 볼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1>.

총 2회에 걸친 열린 청보리밭 축제 결과를 비교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 축제의 경우 1회 축제와 비교했을 때 방문객수가 41%(112,704명), 방문차량 17%(10,467대), 농특산물 판매액 22%(68,327,000원)가 증가하였다. 축제와 관련하여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CF 등)를 통한 홍보도 6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청보리밭

표 1. 축제 현황 및 프로그램

주최	고창 청보리밭 축제 위원회
후원	고창군, 고창군의회, 전라북도, 농촌진흥청, KBS, 농협중앙회, (주)CJ, (주)금호, (재)대산농촌문화재단
기간	2005. 4. 9~5. 15(37일)
장소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일대 청보리밭
공연행사	농악판굿공연, 기타연주회, 농악공연, 판소리한마당공연
상설전시	전통농경문화생활도구전시회, 경관농업사진전시회, 보리관련학술자료전시회, 보리품종(50종)전시회, 전통나침반(운도)전시회
체험행사	짚공예, 손두부, 보리개떡, 규방공예, 천연황토염색, 농경수확체험, 물레·베틀체험, 민속음식(두부, 메밀), 보리밭사잇길걷기, 보리피리만들기체험, 바람개비, 판소리체험교실, 농악체험교실, 농악판굿, 팽튀기
전통놀이	지게저보기, 투호놀이, 율놀이, 굴렁쇠놀이, 널뛰기
먹거리 장터	보리밥집, 농특산물 판매(유기농쌀 등), 고수옹기, 한과, 손두부 등

\* 출처: 2005년 고창군청 청보리밭축제 관련 내부자료

표 2. 청보리밭 축제 성과 비교

구분	개최기간 (일)	방문객수 (명)	방문차량 (대)	농특산물 판매액 (원)
제1회 축제	43	271,520	58,522	313,273,000
제2회 축제	37	384,224	68,989	381,600,000
증감현황	(-) 6	(+41%)	(+)17%	(+)22%

\* 출처: 2005년 5월 고창군청 청보리밭축제 내부 자료

축제는 전국 최초의 경관농업특구에서 열린 축제로서 많은 관심 속에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20여개 지방자치 단체의 견학이 실시되었다.

청보리밭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6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된 제2회 청보리밭 축제는 먹거리, 농특산물, 민박업 등을 통해 3억8천1백6십만원의 현지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인근지역에 위치한 관광지 및 관광 관련 업종(주유소, 식당, 농특산물 판매점, 복분자주, 풍천장어, 하전마을,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선운사, 모양성, 고인돌 공원 등)에 38억4천만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관광객 1인 10,000원 소비기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연구 설계

###### 가.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 및 2005년 4월 15일부터 4월 16일 까지 이틀간의 축제의 참여관찰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고 2005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지역축제 관련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고, 본 조사에서 정량적 방법(조사자 기입식 설문조사)과 정성적 방법(심층 인터뷰)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연구 대상자는 조사자 기입식 설문을 마친 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자 기입식 설문을 통해 정보리발 축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의 내용 중, 마을에서 가장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찾아가는 사람을 묻는 ‘의사결정 권력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축제의 효과를 조사하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 및 축제준비나 축제 운영에 참가(또는 불참)하는 이유와 참가 방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조사 대상 선정**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앞서 고창 정보리발 축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고창 정보리발 축제에 방문객으로 참가하여 관찰하고 축제 및 축제 인근 지역에 대한 문헌 자료 및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를 신용석과 이태희(2005)의 지역축제 관련 이해당사자 유형에 맞추어 분석할 결과, 고창 정보리발 축제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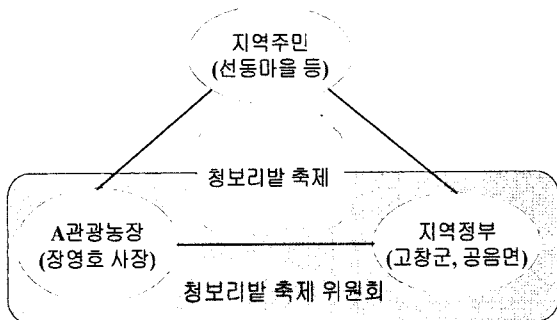


그림 1. 정보리발 축제 이해당사자

그림 1과 같이 정보리발 축제의 이해집단은 개최지역 마을 주민, 정보리발 축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관광농장주, 지자체 공무원(고창군, 공음면)로 나타났다. 정보리발 축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축제위원장과 핵심 운영진이 A관광농장주와 공음면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축제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리발 축제 이해집단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1)정보리발 축제 개최지에서 가장 가까운 선동마을 가구 전체<표 3>, (2)정보리발축제 개최의 주최인 관광사업체(A관광농장 사장), (3)지방정부 공무원(고창군 공음면장)으로 선정하였다. 선동마을의 경우 53명(21가구)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7가구가 거주하는 중심 지역과 마을 중심지에서 3 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가구가 구성되어 있다. 조사는 2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 혹은 가구의 경제권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3. 선동마을 주민 현황

주민등록상 가구수	거주 가구수	총인구	남	여
26	21	53	24	39

\* 출처: 2005년 5월당시 선동면사무소 인구통계

**다. 조사 내용**

조사자 기입식 설문조사에서 농촌관광개발(지역축제개발) 이해당사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질문 항목을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 참여방식, 축제로 인한 기대이익(신용석과 이태희, 2005)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두 가지 관계의 형태(친한 관계와 의사결정 권력관계)를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의사결정 권력관계)과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마을주민(친분관계)을 물어보는 2개의 조사 문항을 제작하였다. 지역축제 이해당사자간 의사결정 권력관계망에서는 “중양성”을 파악하고, 친분관계망에서는 결속 집단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이용된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질문하였다.

**라. 조사자 기입식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진행방식**

조사자 기입식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 3명과 연구자 중 한명이 하였다. 조사원들의 사전 교육을 위해 먼저 조사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현지 조사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지 인터뷰 조사는 이미 정해진 질문문항들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조정하면서 진행하였다(semi-structured interview). 인터뷰 시, 조사원의 역할은 정해진 질문의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피면접자의 의견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였다. 마을 주민의 경우 인터뷰는 대부분 피면접자의 자택에서 실시하였으나 A관광농장주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는 A관광농장에서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에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편안한 상태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면접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60분 사이였으며, 응답 내용의 충실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중의 대화내용은 피면담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후 녹취하여 면접 후 피면담자에게 조사원이 기록 및 정리한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어 피면담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조사 당일 각 조사원과 회의를 통하여 조사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인터뷰 과정과 내용에서 수정되거나, 주의를 요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자료 처리 및 분석**

이해당사자의 개별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축제에 대한 관점 및 평가, 참여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SPSS(version 1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을주민 집단의 이해당사자의 친분관계와 의사결정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II(version 2.5.0)를 이용하여 이해당사자간 의사결정 권력관계망의 중앙성과 이해당사자간 친분관계망의 결속집단의 존재 유무를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 자료는 정성적 인터뷰 자료(qualitative interview data)의 분석기법인 constant comparison method(Glaser와 Strauss, 1967)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피면담자의 응답을 질문의 항목별로 비교하여 응답들간에 반복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응답들을 카테고리화 하면서 응답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3. 분석결과**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관련 이해당사자의 유형은 축제를 주최하는 사업체 A관광농장(농장주), 지역정부의 공무원(공음면장), 그리고 축제개최지의 마을 주민들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는 먼저 이해당사자별로 사회·경제적 지표,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간의 친분관계 연결망과 의사결정 권력관계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축제개최 사업체(A관광농장사장) 분석 결과**

A관광농장주인 장영호(가명, 이후 모든 성명은 가명임) 사장은 남자로 조사당시 59세였으며 대대로 조사 지역마을의 지역유지인 집안의 출신이었다. 그 자신은 서울의 한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1992년에 귀농한 후 A관

광농장을 직접 운영해 오고 있다. 10년이 넘게 A관광농장을 경영해 오면서 보리와 메밀을 통한 경관농업특구로 A관광농장을 특성화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자자체인 고창군과 공음면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고, 협력하여 2004년 처음으로 청보리밭 축제를 시작하였다. 축제장 주변 마을 주민(마을이장 등)과 공음면 유지(학교 교장, 농협조합장, 청년회장,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청보리밭 축제 위원회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위원장으로 있는 장영호 사장과 공음면장이 실제적으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축제 관련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장영호 사장은 청보리밭 축제의 준비/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 개발, 실제 운영까지 청보리밭 축제와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청보리밭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장영호 사장의 사유지라는 점이 축제에 대한 강한 영향력 행사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A관광농장주인 장영호 사장은 청보리밭 축제를 수익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축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보리밭 축제를 통해 기대하는 이익은 농장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였다. 장영호 사장은 청보리밭 축제를 통하여 농촌종합개발사업등의 지원을 받아서 인근 권역 개발을 A관광농장 중심으로 진행시키고자하는 입장을 보였다.

장영호 사장은 축제에 대한 기대이익 확보를 위하여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상징적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른 이해당사자인 고창군 공음면장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창군 공음면은 청보리밭 축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과 고창군의 새로운 수익 모델개발, A관광농장의 인근 마을의 균형개발이라는 이익을 얻고자하는 데 비하여, A관광농장은 농장자체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지역축제개최 사업체로서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축제개최에 대한 기대 이익이 차이가 났다.

나아가 장영호 사장은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차례의 청보리밭 축제에 대하여 장영호 사장은 청보리밭 축제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였다. 즉 축제의 성공과 축제의 참여자로서의 성공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축제 준비와 운영을 위해 투자한 시간, 비용에 비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으며, 축제가 열리는 곳인 A관광농장이 자신의 사유지라는 점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상업 활동을 함으로써 A관광농장으로 들어올 수익이 다른 집단으로 빠져나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나. 지역정부(공음면장) 분석 결과**

청보리밭 축제의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고창군 공음면은 제 1회 축제가 열린 2004년부터 주도적으로 축제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공음면 사무소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보리밭 축제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청보리밭 축제의 성공으로 군청과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음면 사무소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과 함께 특별 진급자를 배출하였다.

공음면 공무원중 청보리밭 축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음면장 이은재씨는 남자이며 조사당시 55세였다. 인터뷰 결과 축제에 관하여 A관광농장주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청보리밭 축제를 고창군 개발을 위한 관광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관중심의 상품을 상품화 및 수익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고창군의 관광 중심지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청보리밭 축제를 통해 공음면장이 추구하는 기대 이익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공음면 지역의 A관광농장 주변 마을의 균형발전, 축제를 통한 이익 확보, 축제 참여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공동분배, 지역 주민 주도의 축제 운영 체계 정착이었다. 공음면장은 청보리밭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축제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비적극적인 태도의 변화, 축제 운영권의 A관광농장 집중 방지,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 확보와 민간 주도의 청보리밭 축제위원회의 역할 활성화와 구조의 정착 등이었다.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제1회 축제 때의 무관심하고, 비적극적인 태도에서 제 2회 축제를 거치면서 참여의식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보리밭 축제 위원회 내에서 사무국장제도를 실시하여, 선동마을 이장을 축제 사무국장장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였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상품 판매대를 설치하였다. 공음면의 이익확보를 위해서 축제 예산 지원, 인력 지원이라는 권한을 이용하고 행사하면서 축제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관광농장주와 축제 운영권을 놓고 갈등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해집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 지역주민 (선동마을 21 가구) 분석 결과**

**1)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먼저, 선동마을의 전체 거주가구인 2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현지 조사에서 파악된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가 61.9% (13명)이고 여자가 38.1% (8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

았다. 연령대별로는 농촌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 30~40대가 23.8%(5명)였으며, 50대 이상이 76.2% (16명)로 고령자집단이었다. 기혼자가 90.5%(19명)였으며, 미혼인 9.5%(2명)는 모두 30대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76.2%(16명)로 마을 주민 대부분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마을의 30대 젊은층이었다.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의 71.4% (15가구)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저소득층이었다. 전체 가구의 52.4%(11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고령의 무직자가 23.8%(5가구)에 달하였다. 전체 가구의 14.3%(3가구)가 청보리밭 축제가 열린 A관광농장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선동마을 주민의 주요 생계수단은 농업과 A관광농장 관련 일이었으며, 전체 가구의 71.4%가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중졸이하의 저학력자가 전체 가구의 76.2%로서 고령층의 저학력자가 마을의 주요 구성원이며, 조사과정에서 30~40대의 젊은층이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다른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청보리밭 축제개최지역 마을주민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징**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	61.9
	여성	8	38.1
연령	30대	3	14.3
	40대	2	9.5
	50대	2	9.5
	60대 이상	14	66.7
결혼여부	기혼	19	90.5
	미혼	2	9.5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	76.2
	고등학교 졸업	3	14.3
	대재·졸	2	9.5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5	71.4
	100~150만원 미만	2	9.5
	150~200만원 미만	1	4.8
	200~250만원 미만	2	9.5
	250만원 이상	1	4.8
직업	회사원	1	4.8
	사업(자영업)	1	4.8
	농업	11	52.4
	A관광농장 관련 업무	3	14.3
	무직	5	23.8



2)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평가

선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보리밭 축제에 대해 가지는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주민의 42.9%(9명)은 청보리밭 축제가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5>. 그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는 축제를 통한 지역의 홍보 효과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한적한 농촌 마을에 축제를 즐기러온 방문객들의 방문이 마을을 활기차게 만들어 긍정적 효과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선동마을 주민들은 청보리밭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선동 마을을 포함한 고창군과 공음면 등 인근 지역을 홍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선동마을 전체 가구의 81%인 17가구가 청보리밭 축제를 주변 친인척 혹은 외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축제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표 5>, 지역 축제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동마을 주민들은 청보리밭 축제가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전체 주민의 81%(17가구가) 축제를 통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 혹은 수익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표 5>,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4가구는 청보리밭 축제 기간 이외에도 A관광농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마을 주민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동마을 주민의 71.4%인 15가구는 청보리밭 축제가 마을의 정주 환경 개선, 경관 정리 등 직접적인 마을의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림 7>.

표 5. 선동마을 주민들의 청보리밭 축제에 대한 관점 및 평가

지역주민들의 청보리밭 축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비율)
청보리밭 축제의 선동마을에 대한 영향	긍정적 영향 - 9가구 (42.9%) 긍정적 영향 없음 - 12가구 (57.1%)
청보리밭 축제로 인한 선동마을의 경제적 혜택 여부	경제적 혜택 있음 - 4가구 (19%) 경제적 혜택 없음 - 17가구 (81%)
청보리밭 축제의 선동마을지역 홍보 효과	마을 홍보 성공 - 20가구 (95.5%) 마을 홍보 성공하지 못함 - 1가구 (0.5%)
청보리밭 축제의 선동마을 발전 기여	마을 발전에 기여함 - 6가구 (28.6%) 마을 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 15가구 (71.4%)
선동마을 주민들의 청보리밭 축제에 대한 자부심	외지인에게 자랑하고 싶음 - 17가구 (81%) 자랑할 생각 없음 - 4가구 (19%)
청보리밭 축제를 통한 마을주민들간의 갈등 발생 여부	관계 좋아짐 - 4가구 (19%) 갈등 발생 - 6가구 (28.6%) 변화 없음 - 11가구 (52.4%)

표 6. 지역민들의 청보리밭 축제 참여 현황

지역민들의 청보리밭 축제 참여 현황	빈도수 (비율)
청보리밭 축제 참여 여부	참여 - 18가구 (%) 불참 - 3가구 (57.1%)
청보리밭 축제의 참여 형태	운영자 - 7가구 (33%) 방문객 - 11가구 (52.4%) 불참 - 3가구 (14.3%)

청보리밭 축제가 마을 주민들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에서 선동마을 주민의 19%인 4가구가 청보리밭 축제를 통한 마을주민간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으며, 28.6%인 6가구가 축제 후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52.4%인 11가구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뷰 결과 축제 후 마을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마을의 의견 주도층에 속하는 30~40대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선동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 마을 및 인근 지역이 축제 방문객들로 인해 활기를 찾게 되고, 지역 홍보 효과가 있으며 축제로 인하여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해 간다는 의미에서 축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의 시설, 경관 정리 등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청보리밭 축제가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지역주민의 청보리밭 축제 참가 현황

설문조사 결과 선동마을 전체가구의 85.7%인 18가구가 청보리밭 축제에 방문객 또는 운영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참가자들 중 7가구가 축제의 운영자, 혹은 축제를 통한 수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으며, 제 2회 축제에서 실제로는 기존의 A관광농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3가구를 제외하면 1가구가 축제의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6>. 다시 말하면, 선동마을 주민들은 청보리밭 축제의 운영 및 축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나 수동적으로 방문객이나, 축제 행사장에서 음식 및 물품을 판매하는 일로 참여하고 있다.

4) 지역주민이 가지는 축제에 대한 관점 및 기대 이익

인터뷰 조사 결과 연령층에 따라 축제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이장 박홍신씨가 포함된 30~40대의 젊은층으로 된 5가구는 청보리밭 축제가 지역축제로서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하며, 축제를 통한 주민들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으나, 50대 이상의 마을 주민들(16 가구)은 청보리밭

축제에 대해서 단순히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만 하거나 축제 자체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리밭 축제에 기대하는 이익 또한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층 그룹은 정보리밭 축제에 대해 기대하는 이익이 없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층의 젊은층으로 이루어진 5가구와 A 관광농장에서 일하는 마을 주민들(4가구)은 축제를 통한 경제적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리밭 축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집단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축제의 운영 주체인 A관광농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4가구를 제외하고는 정보리밭 축제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은 가구는 정보리밭 축제 위원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마을이장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주민들이 정보리밭 축제기간 동안 축제의 운영자 혹은 수익활동에 참여 하지 못한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였으며, 1년간의 수입을 결정짓는 농사 준비철과 축제기간(4월~5월)이 중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축제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축제를 통한 각종 혜택과 수익에 대해서 비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의 주체 측인 농장주인의 경우 축제를 통한 농장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축제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정보리밭축제 이해당사자간 연결망 분석 결과

고창의 정보리밭축제의 이해당사자인 축제개최 사업자인 A관광농장, 지역정부(공무원), 선동마을 주민들의 의사결정 권력관계와 친분관계를 설문조사 후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의사결정 권력관계와 친분관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 II(version 2.5.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이해당사자간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

의사결정과 관련된 마을 주민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결망의 중심에 마을이장인 박홍석씨가 위치하고 있었다<그림 2>. 마을이장인 박홍석씨가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결망의 중앙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박홍석씨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연결망을 보이고 있었다(중심성 0.67). 즉 이해

당사자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은 마을이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

그림 2와 그림 3을 살펴보면, 마을 이장의 의사결정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이해당사자 집단은 A관광농장으로 나타났다. 노경희씨 가구의 경우 A관광농장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A관광농장주인 장영호씨를 지목하였다. 축제개최 사업체인 A관광농장은 지역주민들과의 의사결정 권력관계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지역축제 개발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을 이장인 박홍석씨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영향력이 크지만, 축제의 주최측인 농장과 의사결정 권력관계에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서,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보리밭 축제의 주최측에 반영할 연결 관계(link) 부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인 박홍석씨는 마을의 공무원인 이용재씨와도 의사결정 권력관계망에서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 공무원이 마을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읍에 살아서 평소에 마을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라고 인터뷰 결과 몇몇 마을주민들이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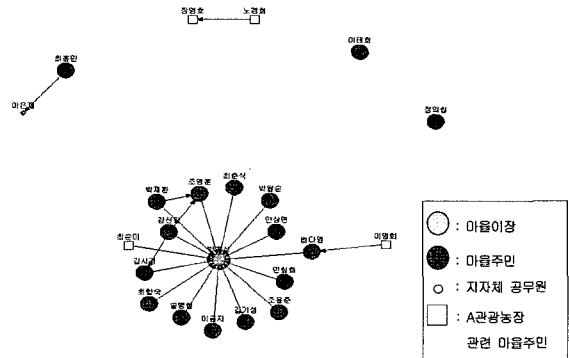


그림 2. 정보리밭축제개발 이해당사자간 의사결정 권력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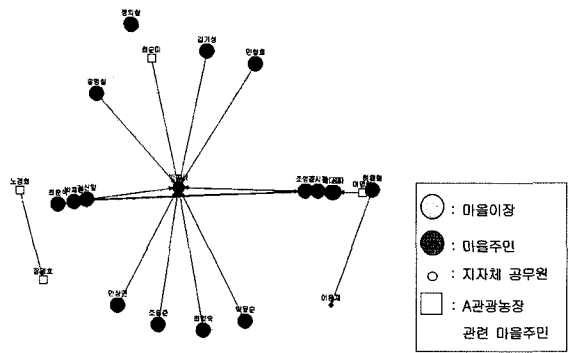


그림 3. 선동마을 의사 결정 연결망의 중앙성 분석 결과

다시 말해, 정보리발 축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간의 의사결정 영향력 관계망을 살펴보면, 마을 주민들과 지역 정부 및 축제개최기관(A관광농장)간의 연결 고리가 부재하다. 다시 말해, 정보리발 축제는 주최측인 A관광농장과 관(정부) 주도에 의하여 기획, 준비,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영향력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최측인 A관광농장과 지역정부간에도 서로 연결관계가 부재하다. 따라서, 설문 및 인터뷰 조사에서 정보리발 축제의 기획, 준비 및 운영에 참여하고 일정 정도 경제적 수익을 기대하는 30-40대 층의 주민들의 의견은 축제 기획, 준비 및 운영과정에 반영되는데 이해당사자간의 연결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축제를 기획, 준비, 운영하는 주최측인 지역정부와 A관광농장간에도 협력적 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2) 이해당사자간 친분관계 연결망

정보리발 축제 이해관계당사자간 친분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개의 결속집단(clique)과 친분관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이해당사자가 나타났다.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30-40대 연령층과 몇몇 50-60대 층이 함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 ('결속집단 1')과 60대 이상의 세 명이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룹 ('결속집단 2'), 마을 중심지에서 3 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집단 ('결속집단 3')이 있다. 축제의 주최측인 A관광농장 주인 장영호씨는 선동마을 주민들과 일상생활의 사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 공무원은 마을주민들의 의사결정 영향력 관계

망에는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친분관계망에서는 결속집단 1에 소속되어 있다<그림 5>.

결속집단 1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은 집단 내에 현재 마을이장인 박홍석씨와 전임 마을 이장이었던 장신일씨가 서로를 절친한 사이로 인식하며 매우 절친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금자씨, 배다영씨, 이명화씨 또한 서로를 친한 관계로 인식하며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두 개의 소그룹이 박홍석씨와 이금자씨의 친분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속집단 2의 경우는, 세 사람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으로써 서로 친한 관계이다. 이들은 젊은 이장들이 지역주민의 의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로 인터뷰 결과 나타났다. 결속집단 3의 경우는 선동마을 중심에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 사람들끼리 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60대 이상의 사람들이었다<그림 4>.

마을 주민간의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에서 소외되어 있던 A관광농장주인 장영호 사장은, 마을 주민간의 친분관계망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사실 A관광농장 장영호 사장은 대도시에서 오랫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복무하다가 1992년 고향으로 귀농하여 부모님이 운영하던 A관광농장을 이어받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고위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하여, 지역에서 지역유지 집안로 인식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집안 배경 및 개인적 배경을 가진 A관광농장의 장영호 사장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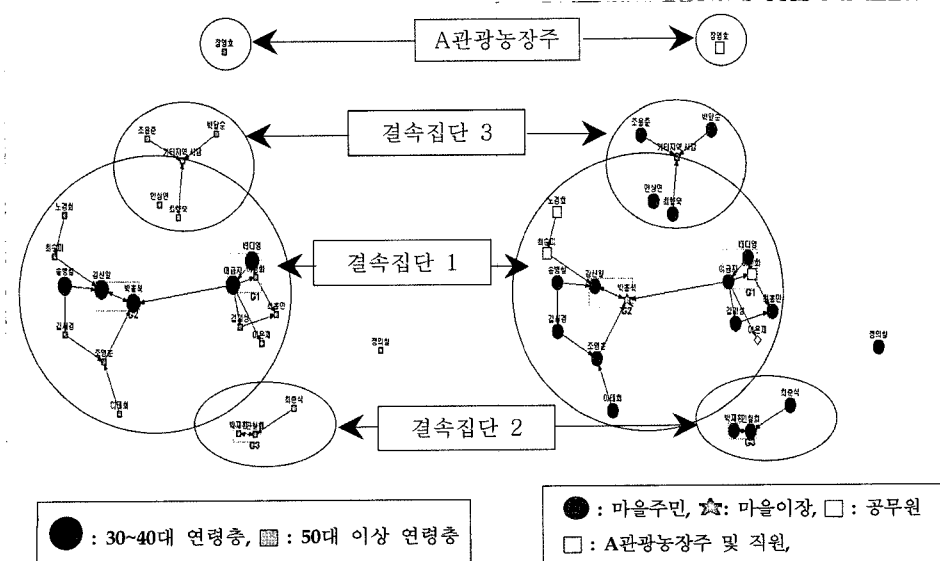


그림 4. 친분관계 연결망(연령별)

그림 5. 친분관계 연결망(이해당사자 유형별)

마. 이해당사자간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사회 연결망 조사 결과 종합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에서 “정보리밭 축제가 마을주민간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응답자들 (11가구)은 정보리밭 축제가 지역주민들간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한 반면, 6명의 응답자들은 축제가 오히려 갈등상황을 낳았다고 보고, 4명의 응답자들은 지역축제가 지역주민간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 축제가 갈등상황을 낳았다고 바라본 6명과 축제 때문에 지역주민간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4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정보리밭 축제로 인하여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4명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축제로 인하여 마을 분위기가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간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축제가 지역주민간의 갈등상황을 낳았다고 인식한 6명은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정보리밭 축제의 개발이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본 집단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축제가 갈등관계를 낳았다고 본 6명은 마을 이장과 30-40대 층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축제기획, 준비 및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주최측인 A관광농장과 지역정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였고, 마을 이장이 마을주민과 A관광농장간의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을 이장 박홍석씨는 마을 주민들의 축제 참여를 통한 경제적 수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A관광농장주에게 수입 보장 모델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30-40대의 젊은 층으로부터도 리더쉽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30-40대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리밭 축제에 관심이 낮은 몇몇 60대 이상의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축제기간 동안 마을의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A관광농장과 축제일에만 집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를 보면, 마을주민간의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한 마을 이장이 평소에 축제의 다른 이해당사자인 A관광농장주인과 지역공무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4>. 그리고 친분관계 연결망에 있어서 마을 이장은 A관광농장주인과 예전에 지역주민 의사결정 영향력이 높았던 60대 집단(결속집단 2, 그림 4와 5)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 주민들과도 직접적으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 반면, 30-40대 젊은 층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정보리밭 축제가 지역주민간 갈등을 낳는다고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결과와 마을주민간 관계 대한 사회연결망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 마을 이장과 가깝지 않은 (친분관계 연결망에서 분리된) 60대 연령층의 지역주민들은 지역축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마을 이장이 농번기 기간 동안 축제 위원회 사무국 일에 더 열심히 바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 60대 연령층 집단이 마을 이장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않아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어서 마을 이장이 생각하는 지역축제에 의한 마을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이장은 지역민들의 정보리밭 축제의 직접적인 참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수익의 보장되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으나, 이들 60대 연령층 지역민들은 마을 이장이 가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한 채, 축제에 대해 비적극적인 자세와 무관심한 태도로 축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소에 마을 이장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30-40대 연령층의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축제에 가지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축제 기획, 준비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바램이 마을 이장을 통하여 축제의 다른 이해당사자들(특히 A관광농장)에 제대로 전달, 수렴되지 않자 마을 이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마을 이장과 가까운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이장과 함께 지역축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마을 이장이 다른 이해 당사자들(A관광농장과 지역공무원)과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과 친분관계 연결망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에 반영되지 않아서 마을 이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이해당사자 집단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 갈등상황이 야기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고창의 정보리밭 축제 개발에서 다음의 세 가지 이해당사자간 관계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해당사자간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의사결정 권력관계망에서 마을 이장이 지역주민의 중심에 있으나, 마을 이장이 축제개최 사업자인 A관광농장과 축제 개최 지원자인 지역공무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축제의 기획,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에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친분관계 연결망에서 분리된 결속집단이 3개가 나타나고 각 결속집단별로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 이장이 공식적으로 ‘이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대부분 마을 주민간의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에서 중심에 있으나, 친분관계 연결망에서는 60대 이상 연령층 주민들이 마을 이장과 가까운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을 이장과 친분관계가 없는 이들 집단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역축제에 대한 관점을 함께 공유할 기회가 부족하여 지역축제에 관심이 없고 참여 의지도 부족하여, 이장이 청보리밭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간 사회연결망의 특징에서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친분관계 연결망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역축제 개발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에서 마을주민과 마을 이장이 연결되어 있고, 또 친분관계망에서 하나의 결속집단으로 마을 이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 이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친분관계와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을 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평소에 마을 이장과 친분관계가 가까운 30-40대 연령층 집단은 마을 이장의 생각과 함께 지역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마을 이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A관광농장주와 지역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표로 전달, 수렴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마을이장과 함께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마을이장과 친분관계에서 가깝다고 하여도, 마을 이장이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연결고리가 없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나눌 수 없자 마을이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지역축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보리밭 축제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관계를 일으키고 있음을 파악하고, 사회연결망 조사로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해당사자간 관계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인터뷰 조사 결과로 각 이해당사자간의 관점과 갈등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사회연결망 조사를 이용하면,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또는 이해(interest)를 조율하면서 협력 관계를 모색, 발전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보다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보리밭 축제의 개발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첫째, 청보리밭 축제를 재정적 및 인적자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정부가 지역정부와 축제의 주최 측이 지역주민과 의사결정 영향력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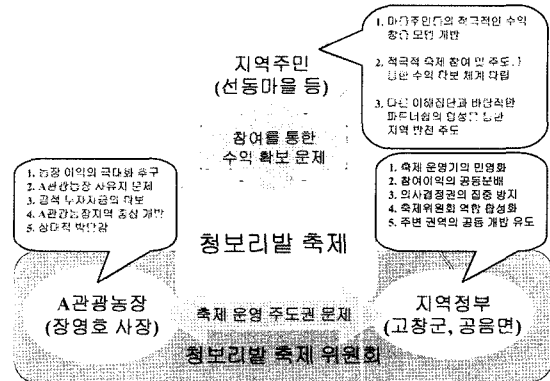


그림 6. 청보리밭 축제 이해집단 구성도 및 갈등관계

결망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여<그림 2, 3>,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어 서로 연결(협력)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의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의 중심에 있는 마을이장이, 친분관계 연결망에서 2개 이상의 집단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친분관계에서 마을이장과 분리되어 있는 결속집단의 대표들도 의사소통 통로에 참여 시키는 것이다. 즉, 공식적인 영역에서 축제와 관련된 축제주최기업체(A관광농장주), 지역정부(공무원), 및 마을주민(마을 이장)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친분관계로 이루어진 결속집단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각각의 결속집단이 축제에 가지는 관점과 생각을 지역축제 개발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청보리밭축제 개발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보다 협조적인 관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간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의 중심에 있는 마을 이장이 친분관계망에서 분리되어 있는 다른 결속집단 (여기서는 예전의 지역유지였던 60대층과 선동마을 중심에 멀리 떨어져 사는 60대층 주민들, 그림 4, 5)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다 자주 지역축제에 대한 관점과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관심을 되도록 통일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의 요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안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의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관광개발과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대안적인 방법론인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와 함께 이용하여 한 농촌지역의 농촌관광개발

이해당사자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농촌사회개발(농촌관광개발) 이해당사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위의 사례 조사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하나의 지역 축제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관계를 일으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사회연결망 조사방법으로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인터뷰 조사 결과로 각 이해당사자간의 서로 다른 지역축제에 대한 관점과 갈등의 구체적 원인과 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연결망 조사를 이용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관계를 모색, 발전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보다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이해당사자 연구들이 주로 지역개발 및 농촌관광(지역축제 포함)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을 그들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고, 구분되어진 각 이해당사자들이 가지는 개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여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친데 비하여, 사회연결망 이론과 조사 방법은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관계의 구조(위 사례연구에서는 친분관계 또는 의사결정 영향력 연결망)를 분석하여, 사회적 연결 구조에서 협력관계(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관계(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를 시각화하여 준다.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관계(분리된 관계)를 쉽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해당사자간 협력관계를 생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연결)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도 쉽게 알게 해 준다.

앞으로, 농촌관광개발 이해당사자 분석에 있어서 사회연결망 분석을 기존의 조사방법과 함께 이용하여 보다 많은 사례 조사 연구를 축적하여 지역개발 및 농촌관광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조사 방법론을 더욱 정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신겸, 1999, 관광연구논총,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11 : 45-59
- 김용학, 2004a,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 덕영사
- 김용학, 2004b,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 덕영사
- 새국토연구협의회, 2005, 국토균형발전과 농촌계획, 제 2차 포럼 자료집, 2005년 8월 24일, 국토연구원강당
- 송미령, 성주인, 2005, 농촌관광의 현황과 전망, <http://aglook.krei.re.kr/agreport.html?menu=1&type=read&uid=67&kid=D0019&cpage=1>
- 신용석, 이태희, 2005, 지역축제 이해집단 분석들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해집단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8(4) : 295-312
- 임형백, 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록환, 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 농촌사회교육 박사학위 논문
- Bryson, J., B. Crosby, 1992, Leadership for the common good: Talking public problems in a shared-power world, San Francisco, Jossey-Bass
- Freeman, R.,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Pitman
- Gray, B., 1985, Conditions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Human Relations, 38 : 911-936
- Getz, D., W. Frisby, 1991, Developing a municipal policy for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Recreation Canada. (October) : 38-44
-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mal, T., D. Getz, 1995,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1) : 186-204
- Kelly, G., D. Kelly, and A. Gamble, 1997, Stakeholder Capital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 McDonell, I., J. Allen, and W. O'toole, 1999, Festival and special event management, Singapore, John Wiley and Sons Australia, Ltd.
- OECD, 1995, Niche Markets as a Rural Development Strategy, Paris: OECD.
- Reed, M., 1997, Power relations and community-based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3) : 566-591
- Sautter, E. and B. Leisen, 1999, Managing stakeholders: A tourism planning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 312-328
- Selin, S., 1993, Collaborative alliances: New international forms in tourism.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2/3) : 217-227